

##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재순\* · 손정우\*\* · 남민선\*\*\*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2000년도 「WHO의 자살예방계획」에서 논의된 바 있는 지난 45년간 전 세계의 자살 경향을 살펴보면, 점차 저 연령층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5~25세와 35~45세 연령층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층의 자살률이 우려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Choi & Park, 2002). 우리나라의 2005년 사망 원인 통계(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를 살펴보면, 자살이 교통사고에 이어 10~19세 연령층의 두 번째 사망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2005)에서도 청소년 자살 사망자의 수와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Oh, 2006에 인용됨), 총 자살자 중에서 청소년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층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Kim, 2003), 청소년층의 자살 문제가 다른 연령층보다 매우 심각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원인적 요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들과, 인지적 발달 단계상 불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대다수 청소년들은 생리적·인지적·정서적 기능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직면한 현실적 문제와 발달적 과제 성취라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부정적 정서, 건강 위험행위 및 일탈 행동을 경험하면서 현실 도피 수단으로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려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남학생의 43.5%~48.4%와 여학생의 50.3%~60.7%가 자살 충동을 경험하였으며(Chung, Ahn, & Kim, 2003; Yoo, 1997), 중·고등학교 학생의 10.8%가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으며(Kim, 2002),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고등학생이 54.1%~60%이며, 이들 중에서 5.6%~10.1%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Kwan, & Park, 2006; Jang, 2004).

청소년기의 자살은 성인과는 달리 자살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 번의 자살시도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 무엇보다도 자살 시도 이전 단계에서 자살 시도의 위험성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함이 중요하다.

Kumer와 Steer(1995)는 자살 생각이 자살 시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으며, Beck에 의하면 자살 생각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

\* 충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 저자 E-mail: jsyoo@cjnu.ac.kr)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부교수

\*\*\* 청원군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간호사

투고일: 2008년 7월 4일 심사완료일: 2008년 9월 22일

이 높아지므로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Oh, 2006에 인용됨). Wichstrom (2000) 역시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시도를 하기 쉬운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자살 생각이 반드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자살 시도의 심각한 예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Lee, Suh, Yang, & Lee, 2004). 이와 같이 자살 생각이 자살 위험도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요인이므로, 청소년기의 자살 시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는 교육 및 상담 중재가 필요하다. 자살 예방 교육 및 상담 중재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이 자살 생각과 우울, 스트레스, 소외감, 절망감, 인터넷 중독,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자아 존중감 등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Lee, 2002; Lee, 2003; Jang, 2004; Ryu, Choi, Seo, & Nam, 2004; Yang, 2004; Seo, 2006; Kim, Kwon, & Park, 2006; Oh, 200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중의 다수가 관련 요인들의 자살 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하기엔 미흡하였거나, 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Hwang(1990)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 생각은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Seo, 2006에 인용됨),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변인과 자살 생각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의 대상자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자살을 생각해 본 고등학생의 35.8%가 최초로 자살을 생각해 본 시기가 중학교 시기이며(Jang, 2004), 고등학생 연령층에서의 자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Kim, Kwon, & Park, 2006), 청소년의 자살 예방 대책의 중재 시기는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시기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자살 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절망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인터넷 중독 등의 요인들과 자살 생각의 관계를 규명하여 자살 생각의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 예방 대책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우울, 절망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인터넷 중독의 실태를 파악한다.
- 2) 청소년의 우울, 절망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자살 생각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충청북도 청원군에 위치한 1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우울, 절망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인터넷 중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 도구

구조화된 자가 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 변인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1) 자살 생각

Lee 등(2004)이 번안한 Reynolds의 자살사고 설문(한국판 SIQ-JR)을 사용하여 자살 생각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한달 동안의 자살 생각을 측정하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살 생각의 빈도에 따라 각 문항 당 0점(전혀 없었다)부터 6점(거의 매일 있었다)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의 빈도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23점 이상인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한다. 선행연구(Lee 등, 2004)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92~

0.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5이었다.

## 2) 우울

Kovacs(1983)의 CDI(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Self-rated Depression Scale for School-aged Youngsters)를 Cho와 Lee(1990)가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 3점 척도(0점~2점)로 구성되었으며, 측정 결과 0~15점은 평균적인 우울상태, 16~23점은 우울경향이 어느 정도 있는 위험 집단(이하 잠재 위험 집단), 24점 이상은 매우 우울한 상태인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한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The Central Mental Health Supporting Committee, 200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이었다.

## 3) 절망감

Shin, Park, Oh와 Kim(1990)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Beck의 절망척도(Beck, Weissman, Lester, & Trexler, 1974)를 사용하였다.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문항 9개,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 11개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긍정적 문항에 대하여 <예>라고 답한 경우엔 0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엔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배점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총 점수(최저 0점~최대 20점)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큰 것을 의미하며, 10점 이상이 위험 집단에 해당된다. 선행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6이었다.

## 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Conners(1997)의 CRS-R(20)(Conners Rating Scales-Revised)을 참고하여 Bahn, Shin, Cho와 Hong(2001)이 개발한 청소년 ADHD 평가도구인 CASS(Conners-Wells' Adolescent Self-Report Scale)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측정하였다. 도구는 인지요인(주의력 및 학습관련)13문항, 과잉행동요인(과다활동성, 안절부절못함)10문항, 품행문제(말썹부리기, 도벽)4문항으로 총 27문항, 4점 척도

(0~3점 평정)로 구성되었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하며, 30점 이상을 위험 집단으로 분류한다. 선행 연구(Bahn et al., 2001)에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83, Cronbach alpha =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9이었다.

## 5) 인터넷 중독

Korea Agency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2002)에서 개발한 인터넷 K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 장애, 현실 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 등의 7개 하위 영역을 측정하도록 총 4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점과 7개 하위 영역 점수에 따라 정상 집단, 잠재적 중독 집단, 고위험 중독 집단으로 분류한다. 즉 총점이 95점~107점이거나 일상생활 장애요인 23점 이상, 금단 요인 16점 이상, 내성 요인 15점 이상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잠재적 중독 집단으로 분류한다. 총점이 108점 이상이거나 또는 일상생활 장애요인 26점 이상, 금단 요인 18점 이상, 내성 요인 17점 이상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 위험 중독 집단으로 분류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이었다.

## 3.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충청북도 청원군에 소재한 1개 중학교를 본 연구팀의 정신보건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우선 설명하였다. 또한 질문지 조사결과를 기초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명 응답을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기명 응답을 하더라도 응답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 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11.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 변인 측정값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사

후검정을 하였다.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충북 지역 청원군에 위치한 1개 중학교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편의 표출하였다. 연구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261명이었으나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26명을 제외한 총 2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 남학생이 120명(51.6%), 여학생이 115명(48.9%)이었으며, 경제수준이 중류인 학생이 215명(91.5%),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은 199명(84.7%), 부모가 맞벌이하는 경우가 125명(53.0%)이었다.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N=2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20(51.6)
	Female	115(48.9)
Economic status	High	5( 2.1)
	Moderate	215(91.5)
	Low	7( 3.0)
	Missing	8( 3.4)
Lives with	Father & mother	199(84.7)
	Father or mother	15( 6.4)
	Parents absent	13( 5.5)
	Missing	13( 5.5)
Door-key adolescent	Yes	125(53.0)
	No	91(38.6)
	Missing	19( 8.1)

#### 2. 자살 생각과 관련 변인 실태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우울, 절망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인터넷 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청소년의 자살 생각의 평균값은 14.25점(±16.38)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요하는 23점보다 상당히 낮았으며, 대상자의 23.0%가 자살 생각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우울 척도의 평균값은 13.78점(±7.19)으로 65.1% 청소년들이 정상 범주인 15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34.9%가 우울증 위험 경향이 있는 잠재위험 및 고위험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절망감 척도의 평균값은 4.80점(±3.73)이었으며, 이들 중의 12.3%가 절망감을 심각하게 느끼는 수준인 10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 학생(30점 이상 집단)이 14.3%였으며, 인터넷 중독의 잠재적 위험 집단 및 고위험 집단은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과 관련 변인의 정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자살 생각과 관련 변인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우선, 일반적 특성과 자살 생각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자살 생각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5.142, p=.000$ ). 반면에 이외의 일반적 특성(경제수준, 부모의 동거 여부,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경제수준에 따라 우울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인 것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우울 점수는 16.40점이었으며, 경제수준이 중위, 하위인 경우 각각 13.55점, 21.00점으로 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025, p=.019$ ). 또한 경제수준에 따라 절망감 정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300, p=.015$ ).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여학생 보다 유의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Variables	Normal group N(%)	Risk group N(%)	M(SD)	Min~Max
Suicide ideation (N=235)	181(77.0)	54(23.0)	14.25(16.38)	0~ 90
Depression (N=232)	151(65.1)	81(34.9) <sup>a</sup>	13.78( 7.19)	1~ 38
Hopelessness (N=235)	206(87.7)	29(12.3)	4.80( 3.73)	0~ 19
ADHD (N=231)	198(85.7)	33(14.3)	19.71(10.90)	0~ 69
Internet addiction (N=235)	218(92.8)	17( 7.3) <sup>a</sup>	59.10(15.53)	40~128

a : latent risk & high risk group

〈Table 3〉 Suicide Ideation, Depression, Hopelessness, ADHD and Internet Addi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icide Ideation		Depression		Hopelessness		ADHD		Internet Addiction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11.17(12.65)	15.142	13.20(6.31)	-1.238	4.31(4.10)	.494	19.44(10.16)	-.368	62.56(16.26)	3.789
	Female	17.45(19.04)	(.000)	14.37(7.98)	(.217)	4.03(4.35)	(.622)	19.97(11.66)	(.713)	55.10(13.61)	(.000)
Economic status	High	14.00( 7.07)	.343	16.40(9.68)	4.025	7.60(7.50)	4.300	19.60( 5.07)	2.935	60.00(15.92)	2.382
	Moderate	14.46(16.47)	(.710)	13.55(7.03)	(.019)	4.02(4.06)	(.015)	19.26(10.71)	(.055)	58.46(15.10)	(.095)
Lives with	Low	19.71(24.13)		21.00(8.64)		7.71(5.28)		29.29(15.16)		72.33(25.18)	
	Parents	15.38(17.11)	2.201	13.89(7.13)	.962	4.27(4.27)	.333	19.67(10.79)	.455	58.74(15.32)	.448
Door-key adolescent	Father/Mother	6.74( 8.45)	(.114)	11.73(8.37)	(.384)	3.35(3.73)	(.717)	19.07( 8.79)	(.635)	56.57( 8.64)	(.639)
	Parents absent	11.23(12.82)		15.46(7.86)		4.55(4.61)		22.54(14.84)		62.15(23.18)	
Total	No	14.82(15.61)	.114	13.66(6.54)	.147	4.28(4.23)	.788	19.71( 9.99)	.357	56.80(14.61)	-1.613
	Yes	14.57(16.84)	(.909)	13.51(7.39)	(.883)	3.83(3.94)	(.432)	19.17(12.44)	(.722)	60.22(15.87)	(.108)
		14.25(16.38)		13.78(7.19)		4.18(4.22)		19.71(10.90)		58.88(15.44)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789, p=.000$ ).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4. 연구 변인의 수준에 따른 자살 생각

우울, 절망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자살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구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고위험 우울 집단에서의 자살 생각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35.30±23.30), 정상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19±9.72). 사후검정결과, 우울의 정도가 심할수록 자살 생각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F=55.331, p<.000$ ). 절망감 위험 집단의 자살 생각 평균값(29.38±21.03)이 정상 집단(12.19±14.48)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5.622, p=.000$ ). 또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위험 집단에서의 자살 생각의 평균값(33.30±23.29)이 정상 집단(11.37 ±12.61)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t=-8.002, p=.000$ ), 인터넷 중독의 잠재적 위험 집단의 자살 생각의 평균값(34.43±20.75)이 정상 집단의 평균값(12.76 ±14.94) 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였다( $F=15.183, p=.000$ ).

#### 5. 자살 생각의 예측 변인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우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절망감, 인터넷 중독 등의 4개 연구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가변수 처리 남자=1, 여자=0)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4개의 설명변인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분산팽창요인)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 값이 .60~1.0, VIF는 1.14~2.04로 나와, 연구 변인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 의하면, 5개의 연구 변인 모두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살 생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우울이었으며( $F=154.142, p=.000$ ) 이 요인의 자살 생각에 대한 설명력은 40.8%였다.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F=83.903, p=.000$ )와 성별 순으로( $F=60.128, p=.000$ ), 자살 생각을 각각 2.1%, 1.9% 설명하여서 이들 3개 변인이 44.8%를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인터넷 중독 수준과 절망감의 설명력이 각각 1.5%, 1.3%로서 이들 5개 변인이 자살 생각

(Table 4) The Current State of Suicide Ideation by Depression, Hopelessness, ADHD, Internet Addiction (N=235)

Variables		N(%)	M(SD)	t/ F	p	scheffe test
Depression (N=232)	Normal group ①	151(65.1)	8.19( 9.72)	55.331	.000	①②③
	Latent risk group ②	54(23.3)	21.54(16.18)			
	High risk group ③	27(11.6)	35.30(23.30)			
Hopelessness (N=235)	Normal group	206(87.7)	12.19(14.48)	-5.622	.000	
	Risk group	29(12.3)	29.38(21.03)			
ADHD (N=231)	Normal group	198(85.7)	11.37(12.61)	-8.002	.000	
	Risk group	33(14.3)	33.30(23.29)			
Internet addiction (N=235)	Normal group ①	218(92.8)	12.76(14.94)	15.183	.000	①②
	Latent risk group ②	14( 6.0)	34.43(20.75)			
	High risk group ③	3( 1.3)	33.33(28.02)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Ideation (N=231)

Variables	Multiple R	Cummulative R <sup>2</sup>	Beta	F	p
Depression	.638	.408	.410	154.142	.000
ADHD	.655	.429	.198	83.903	.000
Gender <sup>a</sup>	.670	.448	-.196	60.128	.000
Internet addiction	.680	.463	.153	47.572	.000
Hopelessness	.690	.476	.149	39.917	.000

a: dummy variable(1=male 0=female)

을 47.6% 설명하였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 절망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인터넷 중독 등의 요인들과 자살 생각의 관계를 파악하여 자살 생각의 영향 요인을 규명한 것이다.

분석 결과, 5개의 연구 변인 모두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울의 정도가 심할수록 자살 생각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을 자살 생각의 강력한 위험 요인 또는 상관성이 가장 높은 척도임을 보고한 선행 연구(Jang, 2004; Seo, 2006; Lee, 2007; Lee et al., 2004), 우울과 자살 시도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Kim, 2002), 우울 정서가 절망감보다 자살 생각과 더 강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Shin et al., 199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절망감이 우울보다 자살 생각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인 것으로 보고한 연구(Lee & Kim, 2007)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자살 생각을 예측하는 여러 설명 변인 중 절망감이 다른 변인들보다 설명력이 낮지만, 자살 생각을 예측하는 유의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밝혀져, 절망감이 자살 생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한 연구(Lee, 2003)와 일치한다. 반면에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절망감이 우울 보다 자살 생각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Lee & Kim, 2007)와는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인지적 요인들이 자살에 대한 절망감의 효과를 완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Cole(1989)의 견해(Shin et al., 1990에 인용됨)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우울 다음으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 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 2차적 특성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학업수행에 장애가 생기고 품행이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Lee, 2004)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면서 충동적으로 자살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거나, 청소년

스스로 주의력이 결핍되었다는 자신의 문제를 지각하게 되면서 이차적으로 우울, 절망감을 경험하면서 자살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자살 생각에 대한 설명력은 낮지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자살 생각의 주요 영향 요인이라는 점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러한 결과가 지지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자살 생각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 또한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과 자살 생각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La, 2005; Ryu et al., 2004)와 일치한다. 청소년의 96.2%가 인터넷 사용자(Korea Agency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2006)이며, 인터넷 중독과 유사한 약물과 알코올 남용 청소년의 경우 우울과 같은 정서질환과 자살 사고가 높은 점(Ryu et al., 2004)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자살 생각과 각 연구 변인의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살 생각의 평균값(14.25±16.25)은 고등학생의 평균값(Ryu et al., 2004)과 거의 비슷하였으며, 중학생의 평균값 12.46±12.27(Lee et al., 2004)보다 약간 높았으나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에 연구 대상자의 23.0%가 자살 생각을 빈번하게 많이 하는 위험집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점, 고등학교 학생의 35.8%가 중학교시기에 처음으로 자살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11.5%가 고등학교 시기인 것으로 보고한 연구(Jang, 2004), 고등학교 학생의 49.3%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Chung, Ahan, & Kim, 2003), 35%가 자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Chun & Lee, 2002)를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의 자살 예방 관리 프로그램의 중재 시기는 중학교 입학 초기가 적기임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성별 특성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학생의 자살 생각의 정도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의 결과(Kim, 2003; Yang, 2004; Oh, 2006)와 일치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의 심리 발달 특성상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감수성이 더 예민하고, 실패에 부닥쳤을 때 느끼는 치욕을 극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고(Yang, 2004), 남학생보다 주관

적으로 지각한 삶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Yoo, 1997)에 나타난 차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대상 청소년의 23.3%가 우울증 잠재 위험 집단에 속하였고, 11.6%가 우울증 고위험 집단에 속한 것으로 분석되어, 고등학생의 우울 유병률을 38.1%로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Kwak, Song, Jeong, & Cho, 2003)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절망감 위험 집단(12.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위험 집단(14.3%), 인터넷 중독 위험 집단(7.3%) 보다 높은 수치로 청소년기 우울 정서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살 생각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다양한 문제 행동을 일으킬 뿐 아니라 차후에 성인기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Lee, 2002), 우울증 위험 집단에 속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와, 자살 청소년의 3/4이 자살 전에 우울증을 겪으며 우울증 진단 받은 환자의 30%가 자살을 했다는 Harter와 Marold의 보고(La, 2005에 인용됨)를 고려 할 때,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우울증의 예방 및 관리가 포함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 스스로 우울의 원인이나 유해 요인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신체건강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 대상의 학교 건강검사의 항목에 우울증 선별검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7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 중재 사업은 시의 적절한 조치이나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도구로 개발된 AMPQ(Adolescent Mental Problem Screening Questionnaire)의 세부 항목 중 내재화 문항에 포함된 정신의학적 문제 행동 문항에 우울증을 선별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시켜 검사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 잠재 위험 집단 및 고위험 집단을 분류할 때에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를 사용하였다. 즉 16~23점을 우울 경향이 어느 정도 있는 잠재 위험 집단의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우울증이

매우 심한 상태인 고위험 집단의 기준점으로 24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우울증의 위험 집단을 선별하는 진단 기준치로 16점을 사용하는 경우와 24점을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 검사결과와 해석 시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치를 16점으로 정한 경우엔, 우울증 위양성률이 높아지고, 기준치를 24점으로 정한 경우엔 위음성률이 높아져 집단검사의 예측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우울증의 기준치를 몇 점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측정도구를 개발한 Kovacs(1983)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민감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엔 낮은 기준치를 기준으로 정하고, 높은 특이도가 필요한 경우엔 높은 기준치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Cho & Lee, 1990에 인용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보건사업 측면에서 집단 선별검사의 시의 우울증의 기준치는 우울증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모두 색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준치를 16점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견해가 지지 받기 위해서는 우울증 집단 선별검사의 기준치를 정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률은 7.3%로, Jeong(2005)의 연구, Byeon과 Lee(2007)의 연구 및 Yeon(2006)의 연구결과 보다는 상당히 낮았으나, Lee(2007)가 보고한 결과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선행 연구의 인터넷 중독 측정 도구가 본 연구의 도구와 동일하므로,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Lee(2007)의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본 연구의 대상자와 동일한 집단인 중학교 1학년 대상이었다. 반면에 Jeong(2005)의 연구는 중학교 2학년 대상이었으며, Byeon과 Lee(2007)는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Yeon(2006)의 연구 대상자는 중학교 2, 3학년이었기 때문에 이들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보다 인터넷 중독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연구의 인터넷 중독률이 Lee(2007)의 연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또 다른 이유로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 시 대상자의 익명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자살 생각의 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의 정신보건센터 주관 하에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명



응답을 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측정 오차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자살 시도의 위험성을 낮추고 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절망감,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선별검사 및 적기 치료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보건교사와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인력 등의 건강증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지원 하에 다음과 같이 1차, 2차, 3차 예방차원에서의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즉 1차 예방차원에서의 우울 등의 정신건강문제의 유해 요인을 통제 조절할 수 있도록 학교정신보건교육의 지침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교사의 1교 1인 배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와 정신보건센터의 연계에 의한 2차 예방차원에서의 선별검사 및 조기 중재, 그리고 시·군·구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문제가 발견된 학생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사회적 재활이 적극적으로 중재될 수 있도록, 현행 시·군·구의 정신보건센터의 조직 확대와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이기도 하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 24개의 중점과제로 분류되어 있다. 이중 「정신보건」 중점과제에는 자살 예방사업과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살 예방 사업의 추진방향에 의하면 사업 시작 당시인 2002년의 자살 사망률 19.9명(인구 10만 명당)을 사업 종료시점인 2010년까지 15.9명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보건」 중점과제에는 학생 자살 예방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청소년 대상의 포괄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함은 「정신보건」 중점과제와 「학교보건」 중점과제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연구 변인의 설명력이 47.6%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변인의 자살 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우울, 절망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인터넷 중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 생각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북도 청원군에 위치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자가보고형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자살 생각의 평균은 14.25점( $\pm 16.38$ 점)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으나, 대상자의 23.0%가 자살 생각 위험 집단에 속하였다. 대상자의 34.9%가 우울증 잠재 위험 및 고위험 집단에 속하였으며, 절망감 위험 집단 12.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위험 집단 14.3%였다. 인터넷 중독 위험 집단 7.3%이었다.
2.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자살 생각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t=15.142, p<.000$ ), 이외의 특성(경제수준, 부모의 동거여부,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별 자살 생각의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의 경제수준에 따라 우울과 절망감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각각  $F=4.025, p=.019$ ;  $F=4.300, p=.015$ ), 인터넷 중독 위험률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789, p=.000$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우울증 고위험 집단의 자살 생각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35.30\pm 23.30$ ), 우울증 정상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8.19\pm 9.72$ ), 사후검정결과,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자살 생각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55.331, p<.000$ ). 절망감 위험 집단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위험 집단의 자살 생각 점수가 정상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5.622, p=.000$ ;  $t=-8.002, p=.000$ ). 마찬가지로 인터넷

잠재적 중독 집단의 자살 생각 점수(34.43±20.75)가 정상 집단(12.76±14.94)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15.183 p=.000).

- 우울이 자살 생각을 40.8% 설명하는 주요 영향 요인이었으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성별, 인터넷 중독, 절망감 순으로 자살 생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5개 변인들이 자살 생각의 47.6%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자살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절망감,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관리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 접근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변인의 자살 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자살 시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중학교 초기부터 정신건강문제(우울, 절망감, 인터넷 중독 등)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교육, 정신건강문제의 조기검진, 조기중재 및 재발을 돕기 위한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 전·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Bahn, G. H., Shin, M. S., Cho, S. C., & Hong, K. E. (2001). A prelimina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assessment scale for ADHD in adolescents: Reliability and validity for CASS.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12, 218-224.
- Byeon, Y. S., & Lee, H. S. (2007). Th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on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3), 460-468.
- Cho, C. C., & Lee, Y. S. (1990).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9(4), 943-956.
- Choi, W. G., & Park, K. S. (2002).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suicidal cause and preventive policy in adolescent*. Seoul: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Chun, Y. J., & Lee, S. H. (2000). Aalysis of variable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7(1), 221-246.
- Chung, H. E., Ahn, O. H., & Kim, K. H. (2003). Predicting factors on youth suicide implus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2), 107-126.
- Jang, H. J.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depression, &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a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Jeong, I. S. (2005).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on their health status-focused on a group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S. (2002).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family dynamic environment and suicidal attempt among Korean adolescent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2), 231-242.
- Kim, H. S. (2003). *The present state of a suicidal act of the young people and confrontation a plan-centering around a middle school bo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im, Y. A., Kwon, Y. S., & Park, K. M.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uicidal risk, self-esteem, and spiritual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7(1), 112-124.
- Korea Agency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2006). *Internet addiction self diagnosis test (K-scale) and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2003. Retrieved June 13, 2007. from <http://kado.or.kr/IAPC/index.asp>.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2005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Daejeon: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Kwak, E. J., Song, I. S., Jeong, Y. J. & Cho, Y. S. (2003). A study on the depression and anxiety of high school students in urban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2), 63-79.
- La, H. J. (2005). *Factors influencing the impluse of suicide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Lee, E. S. (2002).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ee, H. J., Kim, M. H. (2007). A pathmodel for self-identity and hopelessness to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3), 243-264.
- Lee, H. M.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net addiction, depression and self control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 Lee, K. J. (2003).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gh risk group in adolescent suici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K. S. (2004). A literature study o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 Lee, Y. S., Suh, D. S., Yang, S. H., & Lee, K. H. (2004). Development of Korea adolescent form of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15(2), 168-177.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Health Plan 2010. from [http://2010.hp.go.kr/intro\\_1.aspx](http://2010.hp.go.kr/intro_1.aspx)
- Oh, H. A. (2006).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the suicide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Ryu, E. J., Choi, K. S., Seo, J. S., & Nam, B. W. (2004). The Relationships of internet addicti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1), 102-110.
- Seo, H. S. (2006).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suicide thin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 Shin, M. S., Park K. B., Oh, K. J., & Kim, Z. S. (1990).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1), 1-9.
- Yang, S. Y.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stress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Yeon, M. J. (2006). *The state of internet addiction and health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 Yoo, J. S. (1997). *A diagnostic study on high school health education-based on the PRECEDE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Wichstorm, L. (2000). Predictors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of norweigan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9(5), 603-610.

- Abstract -

##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s

*Yoo, Jae Soon\** · *Son, Jung Woo\*\**  
*Nam, Min Su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variables influencing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35 middle school students in Chungbuk Province from April to September 2007. We used the Korean versions of Reynold's Suicide Ideation Questionnair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nd Conners-Wells' Adolescent Scale, Beck's Hopelessness Scale and Internet Addiction Scale-K for measuring the research variables.

**Results:** Of the subjects, 23.0% were classified into the risk group of suicide ideation. Overall, the score of the suicide ideation scale was 14.25 ( $\pm 16.38$ ). The score of the suicide ideation scale in female adolescents ( $17.45 \pm 19.04$ )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male ones ( $11.17 \pm 12.65$ ). Depression was a major predictor of suicide ideation. ADHD, gender, internet addiction, and hopelessness were the other significant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Conclusion:** A strategy for school mental health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prevent suicide ideation. The function of school health and Mental Health Center should be reinforced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staff personnel.

**Key words :** Adolescents, Suicide

---

\* Department of nursing, Chungju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heongwon-gun Mental Health Center